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太平通 (京城日報社內) 東亞日報社 電話本局②一一八一番
月定購讀料金二十五圓

社說

文化人과 政治關與

우리의 머리속에 빼히 封建的 日帝的 殘滓를 淸掃하고 同胞를 科學的으로 訓練하는 한편 專門的 硏究를 深化하야 國際的 文化水準에까지 民族文化의 昂揚을 念願하는 朝鮮의 文化人이 더욱히 民主々義的 政府樹立이 日程에 오르고 있는 現下 右翼的 偏向과 左翼的 偏向을 排除하고 眞正한 民主主義의 實現을 希望하는 朝鮮의 文化人이 그 正當한 發言權을 要求함은 當然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文化人의 正當한 意圖와 發言權이 「民主主義民族戰線」의 煙幕에 擁護되고 歪曲되고 있는 現象은 그들의 崇高한 意圖와 正當한 發言權을 도로혀 阻害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文化人을 爲하야 遺憾히 生覺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二

現下 焦急한 民族統一은 國際的 國內的 情勢에 鑑하야 그 基本的 性格이 民主々義的 民族統一이라야 할 것은 더욱 明瞭한 事實이다。 八、一五 以後 朝鮮의 政治方向이 여기에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許多한 迂餘曲折이 있었다는 것과 小兒病的 過誤의 修正으로서 「民主々義民族戰線」이란 看板이 提唱되었다는 것 自體가 무엇보다도 雄辯으로 이것을 證明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一見 正當하게 보이는 이 看板는 그러나 이것을 提唱하는 사람들에게 對한 大衆의 不信任과 아울너 이 看板의 背後에 번득이는 匕首는 아주 許多한 難問題를 內包하고 있으니 賢明한 文化人이 또 속어지 이것을 看過할 수 있을 것이랴。

三

親蘇親美는 親中親英과 아울너 우리의 國際上 國是라 할 것이다。 그러나 自主와 事大와는 가름이라 할 것이니 우리는 美國事大主義와 아울너 親蘇事大主義를 排擊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世界的 眼光과 날카로운 知性을 가진 文化人이 國粹主義的 獨善傾向을 排斥함은 當然하거니와 지라도 民族의 自主性을 曲할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는 「民主々義民族戰線」의 煙幕에 擁護됨은 文化人 本然의 모습이 部隊的 策動에 가리움이니 이 煙幕에 香蘇되여 右翼的 偏向과 左翼的 偏向을 날카로히 批判함이 없이 엇지 民族的 獨自性과 學術을 具備한 民族文化를 樹立하야 國際文化發展에 貢獻할 수 있으리요。 光復前夜의 超緊迫期에 處하는 文化人으로서 民族萬代의 幸福을 悲願하는 文化人으로서 엇지 獨自的 政治關與를 그르쳐 文化戰士로서의 民族的 榮譽를 毁損케 할 수 있을 것이랴。

民族統一로 外侮排擊

正式政府를 急速樹立

民主議院 重要聲明

기다리든 民主議院의 聲明書는 二日午後二時 德壽宮石造殿에서 金奎植博士가 發表되엿는데 託治問題에 言及하여 外人이 우리에게 託治라는 감투를 씨울라는 이때 우리의 自力으로 그 감투를 免하여야 하겟다는 苦衷을 披瀝하여 자못 感激이 기펏다

聲明書

獨立國의 自主民됨은 三千萬大衆의 共通된 熱望이요 全人類史的 現段階에 있어 우리 民族當面의 重大한 任務이다 이것이 成就됨으로서 民族自存의 千年의 大業은 確立의 첫거름을 出發할 것이오 이것의 失敗는 被隸屬의 멍에를 두번째 메고 子孫萬代에 벗지못할 苦難을 끼치는 悲痛한 犯過로 된다 統一集結은 이를 成就케 할 이요 分裂對立은 死亡의 序曲이다 누가 이 民族自存을 念願치 안는 者이며 再度의 被隸屬을 合퍼하지 안을 者이냐? 眞正한 民主主義는 이 民族統合의 自主獨立國家를 迅速成就하는데 온갓의 力量을 集結시키는 方法이오 原則인 것이니 光復의 大業에는 오직 誠忠과 正大만이 要請된다、 美、蘇、中、英等 聯合四大國의 勝利는 國際「팟쇼」에 對한 民主主義의 勝利이다 이를 指導推進한 人類的 良心은 一切 暴力에 依한 政治形態의 强要를 拒否하나니 맛일 民主主義標榜에서 國民의 意思를 歪曲하고 統一의 名目에서 分裂對立을 激成함이 있다고 하면 그는 誠忠과 正大에 背馳되는 邪曲한 行爲인 것이다

目下 우리에게는 三八線問題로써 制約되는 政治的 社會的 許多한 支障이 있어 正常한 民主々義的 表現을 實現하기가 困難함은 一般이 周知할 바이다 眞正한 自由解放으로 達進코저하는 全民族大衆은 이에 支持合流하여 그의 强固한 推進을 實現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우리 非常國民會議는 이러한 國內的 國際的 모든 緊迫한 事態에 鑑하아보아 지난 二月一日 緊急決議로써 自主的 民主々義 過渡政權을 樹立하여 안으로 統一民族國家의 完成과 밖으로 美蘇中英等 聯合諸國과의 關係에 適正케 하고저 함이 었었다 이 決議에 依하여 지난 十四日 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이 成立되었으니 그는 (南北이 合致한 統一政權을 하로 빨리 促成함에 全力을 기우릴 것은 最大한 使命이다

우리 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은 이러한 經路에서 全三千萬의 民族總意를 具現하는 機構이다 自立的 民主々義 過渡政權을 樹立함에 있어 關係友邦과 友誼的으로 絶對自主獨立의 精神으로써 合作할 것이니 그는 이 合作을 通하여 우리 民族總意를 貫徹시키게 됨으로써이다 다만 모스크바 三相會議에서 云々한 바 託治問題는 우리의 獨立自主에 損傷됨으로 우리는 始終一貫하야 이를 斷然 拒否함이 가장 正當한 民族總意인 것을 또 다시 聲明한다 우리에게는 만흔 課題가 노이여 있다 統一政權의 樹立과 三八線의 撤廢、交通行政의 統一復舊、產業經濟의 再建、大衆生活擁護安定、社會秩序의 再整理等과 그의 手段으로서의 種々雜多한 建設的인 諸工作은 全民族의 精華로써의 各層各界 士女들의 誠意、智見、技術、勤務等 多角的인 全力量을 綜合集結하여 一念猛進함이 必要할 것이다 우리는 全民族總支持의 속에 民生々活의 再建을 國家復興의 工作과 함께 步々前進하는 동안 新憲法과 議院法과 選擧法等의 完成을 바뻐하여 一般國民投票에 依한 正式國會의 召集 및 議院의 成立으로 正式政府를 樹立하고 全國民와 主權에 依한 新國家를 完成함으로서 그 所與된 任務가 終了할 것이다

大韓民國二十八年二月二十三日
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

親日派大赦說 金九主席無關係

大韓民國臨時政府主席 金九氏는 二月二十八日 다음과 같은 聲明을 宣傳部를 通하야 發表하엿다

聲明

昨今巷間에 流布된 某團體의 傳單에 依하면 親日派大赦問題를 云々하고 本人의 意思인듯 論謂되여있으나 이는 全혀 事實無根함을 玆에 聲明함

大韓民國二十八年二月二十八日
大韓民國臨時政府
主席 金九

試驗臺우에선朝鮮

第三次大戰誘發의要素를包含

駐美本社通信員 林炳稷氏의發信

【華盛頓駐在本社特別通信員 林炳稷發】 韓國光復의 歷史的 記念日을 當하야 在美洲 韓人委員會에서는 다음과 같은 聲明書를 本社를 通하야 三千萬同胞에게 傳達하야 달라는 付託이 있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이 悲憤에 넘치는 것이다

在美韓人委員會聲明書

一九一九年三月一日 日人에 對한 韓人의 英雄的 反抗의 記念日은 獨立宣言을 公佈한 이 記念日은 또 한 個의 會은 假面이 되고 있다。 歡喜와 幸福의 날이 되는 代身 自由도 아니고 獨立도 아니기 때문에 (朝鮮은 아직 [illegible] 配下에 있고 또 [illegible]은 蘇聯의 [illegible] 되고 있는 것이다。 (맛치 [illegible]와 같이) 取扱되고 있다) 이것은 民族의 悠久하고 榮光스런 歷史가운데 自由와 데모크라시의 確立을 爲하야 싸워온 戰爭에 依하야 입은 두번재 災難이라 할 것이다。

朝鮮은 이제 알타 秘密協定의 한 個의 犧牲으로서 노여 있는 것이다。 (美國代表는 上院에 엇어서 이 二重取引을 是認하지 않엇고、 또 그런 取引을 하였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惡魔같은 日人의 虐政下에 韓人들은 美國과 蘇聯을 미더 왓든 것이다。 그런대 所謂 얄타協定은 水火相混의 幻想的 平和를 出現식힌 것이다。 그러나 朝鮮은 失敗할 運命에 있고 또 한 個의 世界大戰을 招來하는데 必要한 모든 要素를 包含하고 있는 經驗의 試驗場으로 마들려 하는가?

駐美商工會議所 李元淳氏 祝辭

三千萬朝鮮同胞여… 絶對自主獨立을 達成하기 爲하야 民族的 統一로 이 獨立紀念日을 祝賀합시다。

蘇聯軍駐屯에抗議?

「이란」問題에美國關心

【華盛頓一日AP合同】 當地 一部觀測에 依하면 蘇聯當局이 「이란」에 있어서 平常化하지 아니한 地帶에는 蘇聯軍을 繼續駐屯시킨다는 데 對하야 抗議를 提出하리라 한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一、聯合國協定으로 因하야 蘇聯軍은 三月二日限으로 撤退해야 할 것

二、三月一日에 國務長官 「번즈」氏는 各聯合軍이 他國領土內에 駐屯시키고 있는 軍隊의 可及的 早期撤退를 正式으로 聲明할 것

三、一國이 他國에 武力的 政治壓迫을 承認치 않는다는 「번즈」氏의 聲明

以上 三理由로 말미아마 美國은 「이란」 뿐만 아니라 現在 蘇聯이 駐屯하고 있는 滿洲 奧地利에도 關心을 가지고 있다 한다

偉大한愛國至情

元漢慶博士己未年回顧談

二千萬朝鮮民族이 日本의 羈絆에서 離脫하려는 民族的 絶叫인 獨立宣言의 喊聲이 三千里山河를 振撼하고 民族解放의 巨步를 힘차게 내어드듸인 朝鮮獨立史上에 燦然히 빛나는 三一運動當時에 朝鮮에 在住하든 外國人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이 運動을 支持하여 주고 物心兩面으로 聲援은 이에 아끼지 안엇든 것은 바이 敎育을 要하지 안흘 바이다。 나는 그 當時 延禧專門學校 敎授엿섯는데 水原事件 卽 提岩里라는 村落의 住民들이 獨立運動을 密議햇다는 口實로 日人들이 全部落民을 禮拜堂속에 몰아너코서 石油를 끼언저 불을질러 虐殺한 暴惡無道한 事實을 覺見하고 憤을 이기지 못하야 當時京城駐在美國副領事 「커틴쓰」 「레이커」 兩氏와 함께 現地를 細密히 調査한 뒤 京城으로 돌아와서 外國人間에 救濟事業을 일으키어 食糧衣料等을 보내주엇섯다 그리고 나는 金元璧 劉基俊氏等 延專生을 비롯하야 學生層를 指導援助하엿섯다 그런데 그때의 延禧專門과 世醫專의 校長을 兼務하고 있든 魚丕信博士의 學生運動에 對한 功績은 또한 큰 것이 잇섯다 卽 魚丕信博士는 자기집에 外國人을 招請하야 朝鮮人들이 無抵抗主義를 取함에도 不拘하고 日本警察과 憲兵들이 銃劍을 휘둘으며 朝鮮人을 虐殺하는 殘忍無道한 蠻行을 敢行하니 輿論을 喚起하자고 强調하며 機會있는대로 그것을 實現햇섯다 그리고 世富蘭偲病院에 잇든 「스코필」博士와 「뮤ー러」博士도 三一運動을 陰陽으로 極力 援助해준 사람인데 兩氏는 다 醫師인만큼 日人들의 銃劍에 傷한 朝鮮人들을 晝夜不撤로 看護해주엇다 外에 「뮤ー러」氏는 日人들의 兇惡한 蠻行에 犧牲된 朝鮮人의 寫眞을 人便으로 美本國에 보내어 世界的으로 輿論을 일으키려고 애썻고 「스코필」氏는 寫眞과 通信을 故國인 加奈陀에 보내어 三一運動의 眞相을 밝히어 朝鮮에 對한 同情的 輿論의 喚起에 努力하다가 日本의 惡感을 사서 拘禁까지 當한 朝鮮獨立運動의 外國人義士이엇다

一島與熙素氏(特人) 二月二十八日午前四時、 市內新設町四三三의一一號 自宅에서 別世 發靷은 三月二日午前十一時

횡설수설

▼그제가 三月一日 어제는 三月二日 오늘이 三月三日이다▼三月도 一日같이 一日도 一日같이 十日百日도 一日같이 一日 無窮 一日같이 ▼一日의 國歷에 울린 鐘路普信閣의 인경소래 같이 한번치매 한소래 두번처 두소래 그소래 한소래 일곱처 도 일곱소래 한소래 ─ 와 같은 한소래 두엇다처 도 한소래 ─ ▼衆人이 제각기 처도 다름없는 한소래 ─ ▼三千萬이 韓民族 한所來 ─ 三月一日 그소래 한소래로 ─ 永一한 소래 ─ 三生이 一生 ─ 一日같이!

一日一詠

자유차자 노피우네
종로인경 노피우네
金李東昌 여러선생
이자리에 모섯스니
행여나 님도게시나
두루찻다 우노라
(古下先生을 追念하야) 愍石

社告

光復勞頭에 있어서 모든 犧牲을 不顧하고 從前의 紙價를 維持하려 하였으나 現下와 같은 諸般物價의 急騰趨勢에 依하야 經營上 不得已할 수 없으로 左記各社가 協議한 結果 三月一日附新聞부터 臨時月定購讀料를 二十五圓으로 改正하였아오니 愛讀者諸位는 감히 諒察하시고 倍前 愛護하여주시기를 바라나이다

一九四六年三月一日

서울신문社 漢城日報社 中央新聞社
自由新聞社 大東新聞社 工業新聞社
朝鮮人民報社 世界日報社 東亞日報社
(無順)

三·一記念歌劇週間
白鳥歌劇團 太平洋歌劇團 合同大公演
外 三十名 出演
그女子의一生 七景
빗나는 八道江山 十景
옛집을차저서 七景
白頭山빗날시고 十景
3月3日부터 第一劇場에서

革命劇場
演劇大會參加公演 三一紀念
님 4幕
金順男 音樂 蔡南仁 裝置 朴春明 演出 朴英鎬 作
主催 朝鮮演劇同盟 後援 三一紀念全國準備委員會
3月4日부터 國際劇場

各種靴及皮革製品一切 學生靴各種製造都散賣
高麗製靴本店 (舊高木靴店)
本店 서울市本町一丁目 電話本局 工場 서울市本町二丁目 電話本局

謹告
弊社業務進展에 對하야 平素 多大한 愛護를 蒙하와 感謝不已하는 바이오며 今般 業務擴張과 各位의 便益을 圖謀하기 爲하야 業務를 刷新하옵고 左記事項을 實施하오니 倍前 愛護하여 주심을 伏望하나이다
◇一、營業分室設置 本社營業部(本店)를 分離하야 漢城市中區南大門通二丁目五番地(前三和銀行京城支店跡)로 移轉하옵고 一般業務를 營爲함
◇二、一般預金 今般 會員各位의 便宜를 圖謀하기 爲하야 西曆一九四六年二月十三日附로 軍政當局의 許可를 得하와 一般預金(特別當座預金、當座預金、定期預金、通知預金)을 三月一日부터 取扱하오니 利用하시기를 伏望함
◇三、無盡例會開催 解放以後 不得已한 事情으로 因하야 中止하얏든 無盡例會는 三月九日會부터 開始하되 客年八月十五日以後 停滯分을 同時에 入札하기로 決定함
◇四、株券名義書換 朝鮮人과 日人을 區別하기 爲하야 名義書換(無料)을 하오니 創氏改名으로 株券을 所持하신 株主께서는 早速히 元姓名으로 書換(戶籍抄本添付)하심을 바람
西曆一九四六年三月 日
朝鮮無盡株式會社

嚴恒燮 著
屠倭實記
屠倭實記는 金九先生께서 [illegible] 하신것이다。 祖國의 光復을 爲하야 [illegible] 마나만흔 志士들이 惡戰苦鬪하엿나니 日皇에게 爆彈을 던진 李奉昌義士 白川大將等을 屠戮한 尹奉吉義士는 그들중의 하나인 것이다。
서울市鍾路Y·M·C·A內
國際文化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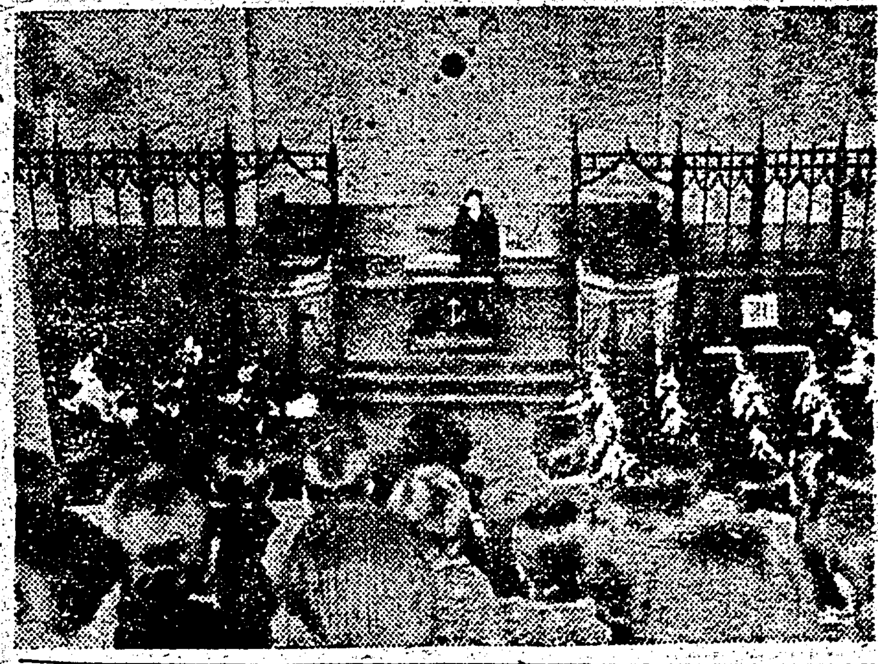
婦女들도 피 뿌렸다 祖國光復에

조국광복을 위하야 봉화를들고나선 전민족적이었든 기미독립운동에 선혈을뿌려 항쟁한 부녀들의 투쟁사를 우리는 이제 도라보다 당시 一천만의 우리여성은 남자에못지안케 열렬한 투쟁을한것이 역사가 역역한바잇나니 이에 三·一운동을기렴하는 이순간 이슬로사라진 유명무명의 순국부녀들의 명복을 또한 빌지 안흘수업다

衆惡한 日帝의銃劍아페 "獨立"을絶叫한婦女들

가슴에 사모처고 애달픈 기미순국 부인추도식은 二일하오 두시 시내안사동승동(勝洞)예배당에서 여자국민당 대한독립촉성부인단과 한국애국부인회등 세부녀단체주최로 헤내외와의 여성독립투사와 순국여성의 유족을비롯하야 일반부인과 시내각여학교생도등 다수 참석아래 엄숙히잡행하얏다

개회벽두양한라(梁漢羅)여사가등단하야「우리는자유의「만경종」이 울리는것을 들엇다 자유 해방의노래를 기쁘게드를때또한우리는 二十七년전 기미독립운동때 프른피를흘려 이슬로사러진 순국열사를 생각케한다 우리는 그들선배의뜻을이여 눈압헤 닥처와잇는 자유의몸으로드러가 그들에브랍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그리하야 三천리강토를찻고 三천만 겨레의 향복을 누리지안흐면 안



感淚속에새로운決意

"어제己未殉國婦人追悼會를執行"

된다 이에기미운동에 사러진 우리선배녀성의 마음을거울삼아 一천五백만 녀성은 단결하고합심하야 오직완전 자주독립의 만세를 힘것그라고 우렁차게 불러봅시다라고 一개식사에이어 이어애국가합창 이잇고 순국열사의 어라며광독과 묵도가잇슨다음 백신영(白信永) 박순천(朴順天)씨의추도사가잇스니 고요한장내는 우름파느끔으로 잠잠하혼돌리다 이어고봉경(高鳳京)씨의답사가잇고 리화여전생의추도가로 식은 동오후 그시경 엄숙한가운대 끗낫다 식이끗단다음계속하야 황신덕(黃信德)씨사회로 추도회가 시작되어 참석한 각여학교생의 연합합창이잇고 취지설명에이어 덕성고녀생와 상명고녀생이합창이잇섯다 그리고 황애텨(黃愛德)씨의 회고담 중앙고녀의합창에이어 황현숙(黃賢淑)박현숙(朴賢淑)여사의회고담 파 박승호(朴承浩)씨의 수원(水原)사건보고등이 잇고동네시지나 폐회하얏다【사진은동추도식광경】

應急米또配給한다

이번에도貧窮者에限해서만實施

시민이고대하는배급미(配給米)가 二일군정청에도착되여 기아선상에울고있는 시민에게반가운소식을 전해주고있다 (市)군정관「윌손」중좌의 말에의하면 이번에드러온쌀은시에서 가장빈궁한세데에게 배급한것이라하며 압흐로도 쌀이드러오는대로 계속하여 배급하리라한다

國慶日에孤兒를떡으로慰勞

한국애국부인회(韓國愛國婦人會)서부지부에서는 회장박필자(朴弼子)총무김분옥(金粉玉)씨와 희원들은 一일정오 시내북아현정(北阿峴町)에잇는 一후생학원(厚生學院)을 차저 마흔일곱명의 고아에 떡을 나누어주고 이어 三·一운동당시의 뜻깁흔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주는등 접업고 어머니업는 아이들에 하로의 애정과우숨을가지게하엿다

三一運動에參加한 女鬪士들의感懷錄

三一운동에여성으로서피를 흘리며 만세를 고창하고 대일항쟁을해온 여성들에 이날참석한 다음의제씨는 감개깁흔듯 당시를회상하며 다음과갑이 감회담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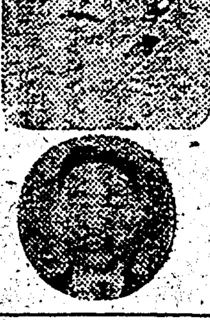
拷問은진저리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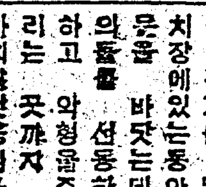
黃愛德(五三)氏談

나는 기미년三월 초승대구에서 만세를 불르고 전국적으로 버리지는 애국부인운동때문에 사울에올라왓읍니다 아직만세소리는 경향각지에끄치지안코 이러나고 애국부인들은 적극적으로 운동에참가하였드니드디어 외놈에게 잡피어서서대문감옥에 들어갓다가八월에一사나왓고 운동주모자라는죄명으로 또다시十一월에수감되엇섯는데 그들은 다만고문으로서 죄를 만들려고만하엿으나 우리들은 종래로 섬하지안헛섯다 그러나억울하게도 四년언도를바더 고생하다가나왓습니다

六十一歲의老婆로 武藤全權의暗殺을圖謀

南慈賢女史의 長男回顧談





기미부인운동 추도식에 멀리만주로부터도라와 이날 유가족대표로 출석한(고 남자현(南慈賢)여사의 장남되는 김성삼(金星三)씨는 아득한 그옛날의어머니가조국광복에 활약하든모습을 다음과가치말한다【사진은(上)고남자현녀사 (下)그의장남감성삼씨】

어머니는三十년간을 조선독립운동에 바치어오셧읍니다 본적 경북안동(安東)구작면 구미동에서 당시한국의병대(韓國義兵隊)소대장인 김영주(金永周)씨와 결혼후 흥한독립운동(興韓獨立運動)에 종사하다 아버지가 일본관헌에게 총살을당한후 一九一八년二월二十六일 기미독립운동이 서울서잇다는 소식을접하고 서울에와 연희전문학교 부근회서당에서 동지와협의한후 시내각교회신자를규합하여 三월一일오후一시 조선독립선언서를자산이 들고다니며배포하고삼엄한 경계망을버서나九일 만주로건너가섯읍니다 그후꾸준히남북만주에서다만독립운동을계속하여왓습니다 그러든중당시재등(齋藤)총독을암살하려하엿스나 여의치못하여단념하고잇다가당사하르빈에도착한국제련맹조사단(國際聯盟調査團)에조선독립부인운동을보고하엿습니다 그리고 一九三二년의 일본인 무등전권(武藤全權)을 암살하라고 계획중하후빈 형사경찰에 체포되어 구금중단식十七일을한후 八월二十二일 六十一세로 놉흔애게 귀한 목숨을더 빼앗겻든것입니다

處女三人이中心되어서

黃賢淑氏談

내가 열여섯살나는 해 三월二十일에 천안(天安)왜성대란 마을에서 처녀三인이 중심으로 독립운동을이르켯는데 마침그날이 장날이되엿기때문에 기회가조화서 일대시위운동을 시작하엿다가 드되어 검거를 당햇읍니다 류치장에잇는동안 무서운고문을 바닷는데 경찰은너의동료 선동한자가누구냐하고 악형을주엇으나 우리는 끗까지 그것을 말하지않엇읍니다 공주감옥의일년체형에서 우리는더욱애국심이 구더젓읍니다

있는 임시정부로 보내는 돈을마러두라고하기에 마러두엇다 내주엇읍니다 그렛드니 이것이 탄로가 되여 외놈에게 잡히어갓읍니다 축형을하며 그들은 무슨돈이며 누가갓다 두엇느냐고 문초하여도끗끗내 토설하지아니하엿드니 七월三十일 서대문형무소로 넘어가서몇달동안 형기를마치고 나온것뿐입니다

處女로서 最後까지鬪爭

朴謙淑(四一)氏談

기미만세때는 목포에서만세를 불으고모든책임을모다 우리처녀十명이저서대구감옥으로송국되였댓습니다 또그해十二월우리는대동사건에참례하였는데 그전날우리는죽을결심을하고 옷도새옷을가라입고 께끗이목욕까지하고그다음날에 거사하였읍니다

臨政가는돈 마텻다가

洪貞姬(五二)氏談

그때나는二十八세때인데 홍(洪)희희씨가 상해에

從業員에保險制

京電에서率先實施

시내 경성전기회사에서는 이번급사에 이르기까지 七천여종업원에게 전부매인 五천원의 생명보험을 회사경비로서 가입식혓다 이로서회사가 부담하는총경비는 매해 七십만원에이르리라 하는바 이에대하여 총무부장 오기영(吳基永)씨는 다음과갑이말한다

吳基永總務部長談

전종업원이 열심으로 일하는데 대하여 보답하는뜻으로 어것을 실시하였다 조선에서 이러한제도는 처음된일로 사장 이래환씨의영단이다

京電重役更新

시내경성전기회사는 지금까지 군정관 필손대위가 사장의 직무를 마라보고 조선인간부로 서는리래환(李泰煥)씨가 사장대리로 사무하였는데 이번에 조선인의 중역진을 결정하였다 사장은 현사장대리 래환씨가 취임하엿고 경리부장은 독고선(獨孤璇)씨 그리고상무는 최선익(崔善益)씨가 취임키로되엿다

武器는警察에納付하라

무기를가지고있는 사람은 三월十四、五、六、三일간에바치라고 군정청 경무국에서는 다음과갑이 발표하였다

경찰관 과 국방경비대원이외에는 여하한 사람이라도 여하한무기를 소유 혹은 보관 관리하는것은 불범이다 일반시민은 각가정을조사하여무기가있으면、처벌하지않을터이니 지정한날까지 근처경찰서에 밧처야한다 그리고 밤에우기가지고있는사람을발견할때에는 극형에처할것이다

麻浦署에常備警察隊를組織

서내마포서에서는 범죄의 절멸를기하고져 비상경찰대를 강화하기로되여 상비경찰대(常備警察隊)를조직하여 약五十명의 현사와경관들을 무장식키여 관내각처에 상비적으로 경계키로되여 一일오전 령시부터 시작하엿는데 이상비경찰대는 일정한장소에서 이른날오전五시까지경비하며대비키로되엿다

MP腕章한强盜

시내마포서에들어온보고에의하면 一일하오九시경시내토정정一〇六신년수(申年秀)(二四)는 영등포에갓다집으로도라오는길에 마포종점운지나랴할때 미군자동차에서미군헌병완장을한 엠피두사람이나타나 권총으로위협하고현금八백五十원을강탈도주하였다

電球專門盜賊을逮捕

전구가다마 한개에백원이란 호가를하는데서 옥기가난 노인이잡히엿다 一일하오 八시반경 시내 남대문통 一정목一二一번지 김만수 金萬壽(五六)은 시내 서린정모집 외등전구를 절취하는현장에서 검거하엿는데 이는지난十월부터 전문으로 전구를절취하 사실을 자백하였다

文化消息

大東翰墨會創立

四千年前의書道藝術을挽回하려고 이번에梨花高女內에大東翰墨會가創立하였다 同會는朝鮮의固有한傳統과 建國理想을顯彰함에 適當한書道藝術을確立하여國家文化에貢獻하려는것인데 實踐事項과役員은다음과갓다

實踐事項 初等及中等校 習字敎育의研究▲展覽會、講演會等의開催와 出版物發行▲優秀書藝學徒의 表彰▲書道用具의 品質改善과購入斡旋

役員 顧問吳世昌 安鍾元 金容鎭▲參與李殷相外十八 會長金台錫 (理事)(略) 金台錫氏略歷 斯道의研鑽二十八年、支那漢字界의至寶로서 九年前歸國하여 그후刻苦努力으로獨步精進中인데、氏의著書「書藝四體書法」은 滿洲와 北支에서 習字敎科書로使用되고있다

文化交流에外國文化와美映畵輸入

의交流를主目的으로 軍政當局의諒解밋헤 二十三日、美榮文化映畵界重鎭들노 資本金五百萬圓全額拂込의「코리아映畵貿易會社」가서울市南大門一丁目五番地에 創立되었다 同社에서는 뿔서 美映畵多數輸入에對한確實한成案이서서 不日、本格的公開에 着手한다하며 이에맞아三八度以南各主要都市에 出張所와그責任者도 選築中이라고한다

文化研究會를創立

우리의 民族文化를 調査檢討 研究하야 그의向上을 꾀하고저 文明宦 黃熙贊氏等의 發起로 朝鮮文化研究會를 創立하기로 되였다

朝鮮政經學會組織

全國政治運動者後援會에서는 一般의政治經濟知識을啓發向上식키고저 이번朝鮮政經學會를結成하엿는데 委員長은李克魯博士를選定하엿다한다

戰災學生援護會에寄贈

우리東洋畫壇의 中堅을 總網羅한 檀丘美術院에서는 今般「三一」記念美術展覽會를 서울 中央百貨店에서 三月一日부터 開催함은旣報한바이지만 이展覽會의 結果收入은戰災學生援護會에 寄贈하리라한다

國立劇場不日實現

軍政廳敎化課에서는 劇藝術關係者를 招請하야 國立劇場을 設立코저計劃中이든바 마침내 成案을어더 不日實現하기르 되었는데 劇場長에는 徐恒錫氏 同助力者에는 蔡廷根氏가 各各指命되어 方今 市內太平通高麗文化社內에 臨時事務所를 두고있다

梅毒、淋疾、옴、瘋風 무서운三大惡疾短時日에完全根治함
各種花柳病專門 子宮病姙娠特効
漢城市中區三角町十一의三
濟蒼局

齒科材料 齒科器具 其他一式
漢城市櫻井町二丁目一五一 (花園市場前)
大同齒科商會 主 崔相
◇…『治療器具』도 修理品도有함…◇

各種음약大量入荷
一流製藥會社新藥 有名賣藥 局方藥品 衛生材料
光化門郵便局前 電光③三五九八番
東海貿易藥品商會
營業所 서울鐘路一丁目八番地 倉庫 서울鐘路一丁目十五番地

三·一運動記念週間
朝鮮映畫社 提供
解放뉴一스大會 全6卷
解放以後全뉴一스總網羅
獨逸名畫同時上映 未完成交響樂
3月2日부터 和信映畫館

카一바이트多量入荷
貨物自動車運搬取扱
親切叮寧迅速
서울市黃金町四丁目一八七
大同物産
電話本局②五七二番

國文타이프活字 月産五〇〇組
特約販賣店募集
서울市南大門通一丁目九九
製造販賣元 文化商會
市內販賣店 萬隆商會
電話本局四〇二一番

高級寫眞技師採用
明治町二丁目三九
月光寫眞館

本人의圖章을漢城市[illegible]町和路旅館에서盜難을當하엿기로更刻使用하기廣告함
忠北忠州郡山尺面永德里 李通永

金銀細工技術者採用
서울市鐘路二丁目六
天寶堂

學校敎育品·文房具類 校具 紀念品 寫版附屬品一切
朝鮮敎育商品商會
서울市櫻井町二丁目
電本②七六六三一番

訂正 三月一日附一面廣告中(大陽産業株式會社)는(大洋産業株式會社)에 訂正함

東洋農園
씨앗 팝니다 種子
서울鐘路四丁目九
電話東局三三四四番

感氣 特効藥「別府散」三圓
頭痛藥「아스피링」
淋疾 「노바구」
全國各地有名藥店에서 代理店募集함
京城阿峴町 山本藥舖
市內販賣所 前中井 電本二七九七

옴약 가려운데약 피부병根治

一烏[illegible]氏以宿患今月二十八日(陰正月[illegible])上午四時別世 玆以訃告
發靷日時 三月二日上午 京城府新設町
葬地 市外[illegible]里共同墓地
嗣子 [illegible] 弟 [illegible] 護喪 [illegible]